

2021학년도 대수능

[『사미인곡』, 『창 밖의 워석버석』,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헌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허나 점어 잇고 님 허나 날 괴시니  
 이 막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싱(平生)애 원(願)허요디 허디 네자 허앗더니  
 늣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허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들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허야 고이 홀고  
 막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허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싱(人生)은 유헌(有限)허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헌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허논고야  
 염냉(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태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곱득 냉담(冷淡)허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향흔의 돌이 조차 버마티 빗치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창 밧긔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헤란(蕙蘭) 헤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헌 간장(肝腸)이 다 그츨가 허노라

- 신희 -

\* 헤란 헤경 : 난초 핀 지름길.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잣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짐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인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쿵쿵쿵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 유중영의 옛일 :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임원 : 산림.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허논고야'와 (나)의 '허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헤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점어 잇고'와 '늪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인생은 유흔'과 '무심한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택'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3.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굳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4.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5.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보기> - 지상과 천상의 시간, 대립 구도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조차'는 '줄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삼기다'라는 단어의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헌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 '점다'는 '젊다'라는,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막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 '노여'를 제외하고 문장을 현대어 역하면 어떤 분위기로 읽히나요? 이후 '노여'의 기능 혹은 의미를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평싱(平生)에 원(願)하요디 헌디 네자 하얏더니  
=> '네다'는 '가다' 혹은 '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 '그리다'는 대개 '그리워하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 '광한던'은 직접적으로 '달나라의 궁전'을 의미하지만, 대개 '대궐'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해보세요.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 '광한던'에 '올났'고, '하계'에 '느려오'는 내용을 통해 <보기>에서의 '대립 구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고, 화자의 심리는 어떠한가요? '간단히' 추측해보세요.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막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 '실음'은 '시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 '디느니'는 분위기상 어떤 정도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인칭(人生)은 유한(有限)헌디 시름도 그지업다  
=> '시름'은 '시름'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심(無心)헌 세월(歲月)은 말 흐르듯 하논고야  
염냉(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탈 오니  
=> '고터'는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뜻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 '동풍'은 '봄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긔득 냉담(冷淡)헌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돌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Q1. (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나) => <보기> -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

창 밧긔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헌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 '어즈버'는 감탄사 '아아'의 의미입니다.

- 신홍 -

\* 혜란 혜경: 난초 핀 지름길.

Q2. (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다) => <보기> -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갓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 화자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이 있고, 그것을 화자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춰 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 두 가지 고요함 중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기>와 연결됩니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 시간이 바뀌어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팔팔팔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종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 (중략)이 있지만,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굳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3개 문단 동안 나타난 정서, 반응, 대상을 확인해보고 결국 화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생각해 보세요.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 당호: 집에 붙이는 이름.
- \* 유중영의 옛일: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 임원: 산림.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가)의 '노여'가 쓰인 문장은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견줄 데가 없다는 의미를, (나)의 '다'가 쓰인 문장은 임이 온 줄 알고 착각하여 애간장이 그칠뻔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임에 대한 원망과 연결하는 것은 정반대의 시도입니다.
- ② (가)의 '흐느고야'와 (나)의 '흐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대략적인 작품의 분위기 및 주제 등을 고려할 때, (가)와 (나) 모두에 대하여 '화자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색다른 시도입니다.  
(가)의 '흐느고야'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한탄을, (나)의 '흐노라'는 임의 부재로 인해 착각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이를 화자의 의지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색다른 시도입니다.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일반적으로 '미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여 (가)에서 화자가 임에 대해 갖는 마음을 상징하는 '동일시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혜란'은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소재로 보아야지, 화자와 동일시되는 소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색다른 시도입니다.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가)의 '므스 일고'는 매화의 향기에 대한 영탄이 맞고, "냉담'한테"로 연결되어 뜻밖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를 반가움까지 연결할 수 있는가는 이후의 맥락으로 인해 모호합니다. (나)의 '므스 일고'는 낙엽 소리가 불러일으킨 착각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반가움'과 연결하는 것은 정반대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일부 모호함이 존재하므로, 해당 선지는 (나) 부분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 대략적인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에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을 담은 선지입니다. 또한 이 구절이 모두 누군가와 의 대화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독백적 어조라는 것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천상과 지상이라는, 공간에 대한 대립적 구도가 만들어지고 천상과 지상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따라 천상은 이상적인 공간, 지상은 한계가 있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화자는 임과의 '연분'을 '하늘'이 모를 일이나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두 소재는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하늘)은 '천상'과 잘 연결되고,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라는 내용은 <보기>에서 제시되었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 ② '점어 있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점어 있고'는 천상에서 임과 함께할 때의 화자의 모습임을, '늑거야'는 하계에 내려와 임과 헤어진 후의 화자의 모습임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에 대한 표현은 <보기>가 제시한 생로병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상의 광한전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아 젊은 모습을 유지하지만, 지상인 하계에 내려와서는 늑게 되는 것이죠. 이는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그 후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화자가 하계로 내려온 것은 '삼 년' 전입니다. 내려올 때 빛고 있던 머리가 흐트러진 지 삼 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화자는 내려오기 전 임과 함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엇그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삼 년 전 임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생생하여 '엇그제'라고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는 <보기>에 나온 대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엇그제'라는 표현은 화자가 느낀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요.
- ④ '인칭은 유흔'과 '무심한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화자의 소망은 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기>가 제시한, 지상의 제한적인 시간 질서와 맞물려 화자의 불안을 유발합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세월은 '무심하게' 흐르므로, 임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니까요.
-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택'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

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염냥'은 각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필수적인 수준의 어휘는 아닙니다. 따라서 맥락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 전으로 화자는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임과 함께하고 싶은데, 시간은 무심히도 흐르고 또 인생은 유한하니까요. 또한 이 구절 후를 봐도 화자는 여전히 임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자에게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긍정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선지 ④처럼 지상의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적절한 내용이라면, 이 구절 이후로도 화자가 임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는데, 여전히 앞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구절이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을 보인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된다고보다는 오히려 너무 빨리 흐르는 시간을 한탄하는 내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학 특유의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을 대처하기 좋은 선지이기도 합니다. 항상 대비적 시선을 가진 채로 선지에서 말하는 해석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합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고요함'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나)는 고요함 그 자체, (다)는 구분한 고요함 중 내적 고요에 치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나)의 화자는 '창 밖'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창 밖' 소리를 창 안에서 들었다는 것은, 화자가 <보기>에서 제시한 '고요함의 구분'에 따른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가 낙엽 소리를 통해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나)의 화자는 선지 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습니다. 이는 화자가 <보기>에서 제시한 '고요함의 구분'에 따라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

지 못하여 빛은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이 없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내적 고요를 얻지 못한 상태에 놓여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다)에서 '슬픔이 더해진다'는 상황은 옛집을 돌아보는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사가 벌써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슬픔'은 <보기>의 내적 고요가 설명하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와는 분명 거리가 먼 것이므로, 선지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다)에서 '옛집'의 당호를 '임원'에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에 따르면, '임원'은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고 표현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임원이 이미 고요한데 또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는 건 오버 아니냐'라는 다른 이의 말에 대한 답변이었죠. 즉, 임원이 이미 고요한 것은 외적 고요로, 또 '당호'가 옛집에서 마음의 고요함 즉 내적 고요의 추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생각하면 이를 내적 고요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다)에서 '누군가'가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 것은, 그가 당호를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호는 선지 ④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내적 고요를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따라서 이를 군더더기로 보겠다는 것에 "외적 고요만으로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를 거꾸로 해석한 정반대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가)에서는 젊고 늙음이 임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어 외양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다)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은 정반대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가)에서 '오래된 것', '새로운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즉 지나치게 색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는 하나, 그 둘에 경중을 두려는 태도는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가)는 부재하는 임을 떠올리는 상황임을 단박에 알 수

있고, (다)에서도 옛집에 다시 찾아가 선친을 생각하는 것, 유증명의 옛일을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므로 두 작품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가)와 (다) 모두 "인생의 허무함"을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색다른 시도입니다.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 (가)에는 사랑을 주던 옛날과 달리 현재 임에게 버려진 아쉬움이 있지만, (다)에서 과거와 달라진 화자의 마음가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갖고 있었던 '마음의 고요함의 추구'를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가지고 있으려는 태도를 보였죠.

## 5.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당호의 내용은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였습니다. 집이 동쪽으로 치우쳐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이러한 당호를 걸고 자신을 위안했다고 표현됩니다.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화자는 다시 찾은 옛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선친을 모시고 앉아 여러 일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유증명의 옛일"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전혀 그렇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가 바뀌어 옛집에 다시 살면 슬픔만 더해진다고 표현하였죠.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그렇습니다. 옛집과 달리 인간사는 변하여서 옛집에 다시 살면 슬픔이 더해져 새 집을 짓고, 옛집의 당호만 가져와 그곳에서 가졌던 뜻을 지키려고 하였죠.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그렇습니다. 사람을 담고 있어서 그릇보다도 사람에 가깝다고 표현하죠. 동시에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며 설의적 표현으로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냅니다.